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 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마 26:36-46)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상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고, 복음서는 곳곳에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었고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본문에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곧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때 마음에 고민이 많아 죽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고민은 결코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의 죄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 방울 같이 되더라”고 증거합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기까지 기도하셨겠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39절).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 ‘파테르’라고 부르시며 기도하십니다. 파테르는 하나님을 가장 친밀감 있게 가장 신뢰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연약해지신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시며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히 4:15).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안타까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또한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기 위해 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매우 큰 고민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졸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을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시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던 제자들은 결국 시험에 빠져 예수님이 체포당하게 되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도직을 포기하는 큰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기도하자고 하십니다.

깨어 함께 기도하자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해 겹세마네 동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기도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Watch With Me

(Matt. 26:36-46)

It is not too much say that the life of Jesus is a prayer. When He started the work on the earth, he fasted and prayed day and night for forty days. Jesus got up in the gray of the daybreak, and started a day by praying after looking for a quiet place. And everywhere in the Gospels, it was written that Jesus prayed before the night. The prayer was for Jesus a holy habit and something like a living life.

In the text, it appears that Jesus took Peter and the two sons of Zebedee, in other words; James and John along with Him in order to pray. At that time, Jesus said to them that His soul wa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Jesus' sorrow confronted with the death on the cross was never the flesh. All our sins' weight of the world to bear for Jesus was far heavier. Moreover, severance with God, Father made Him very much painful.

Luke witnessed, "And being in anguish, he prayed more earnestly, his sweat was like a drop of blood falling to the ground." What a desperate and urgent he was! How did Jesus pray till his sweat was like a drop of blood?

My Father, if it is possible, this cup be taken from me. Yet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v. 39).

Jesus prays by calling God, my Father 'Pater'. Pater is the name that is called with the most intimate sense and the greatest trust feeling. Such a Jesus' week image is the reason that Jesus is a son of man with a weak body like us and an existence of a man who is tempted just like us (Heb 4:15). Upon this, Jesus can understand, feel pity, and comfort us when we are tempted,

Jesus did not want to break with God. Moreover, if it is possible, He wanted to avoid the sufferings. But because He knew that Father's will accomplishes, He prayed that yet not His will but as Father's w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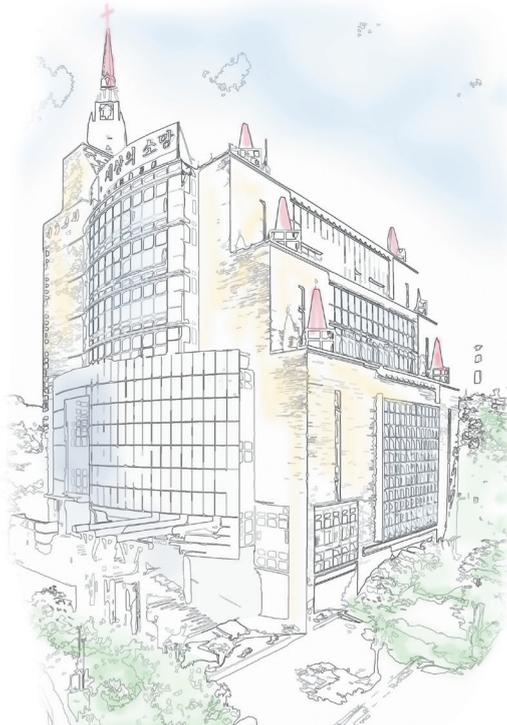
However, in spite of Jesus' prayer in the great trouble and sufferings, Jesus disciples who went together to pray were half drugged with sleep. Jesus felt pity for His disciples who had no choice but to drop into a dose because their spirit was willing, but the body was weak. But He taught them to keep watch and pray with Him.

In the last, His disciples who could not keep watch has been tempted, gave up, and ran all away, when Jesus was arrested. Even Peter who would go with Jesus together to death denied Jesus three times, and has been tempted to give up his discipleship in fear.

My beloved Christians,

Jesus now continues to pray for us in the right of God's throne. Even now, such Jesus let us pray together.

The word of Jesus who keeps watch and pray with us must come to in our heart. By following Jesus to the mount of Gethsemane and by praying to become a prayer,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a victorious peopl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5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

오리엔테이션 : 오늘 오후 4시, 본당
장학금 수여식 : 찬양예배시간에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안인호 장로)는 2015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장학금 수여식에 앞서 오후 4시에 있을 오리엔테이션에 대상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때에 장학금을 받을 본인명의의 통장 계좌번호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장학금 수여식에 단정한 복장으로 참여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총 46명으로 본인의 믿음이 신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교회봉사에 모범적인 학생들이다. 서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말씀 안에 자라나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끄는 기둥들이 되도록 기도한다.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브리스길라 이종훈 (1명)

송암장학생(대학부)

김영기 장지훈 안세인 김성경 이다현 김수연 이성화 임주빈 김기남 김준서 김현지 최희연 조영제 오완근 박서정 배상은 최의진 (17명)

고등부

장소영 전준수 황수지 정예빈 박소희 이우진 (6명)

디아스포라부

최아라 홍지아 김혜경 김수진 정은희 조영금 엄예밀 리 (7명)

교역자 선교사 직원 자녀

서윤영 김지혜 황성진 우하은 김예림 이준행 김예나 정에스터 이지행 조라혜 김노수 이재준 (12명)

호산나장애인전문대학 류근휘 성동제 김신탁 (3명)

총 : 46명

분단 70년 한민족 통곡기도대회

8월 15일(토) 인천순복음교회 / 이종훈 원로목사 기도회 담당

지난 3월 1일부터 시작되어 국내외 교회들과 함께 통곡기도회를 이어온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사무총장:손인식 목사, 이하 북교연)이 오는 8월 15일 '분단 70년, 한민족 통곡기도대회'를 인천순복음교회에서 개최한다.

통곡기도대회는 미국 이민교회가 중심이 되어 지난 2004년에 시작됐으며, 미국에서만 22개 도시가 동참해 기도운동이 일어났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10월 통곡기도회가 시작되어 국내 9개 도시에서 주요 역 광장 등에서 기도운동이 진행되어 왔다.

북교연은 지난 3월부터 8월 15일까지 6개월간 국내 100개 교회, 해외 100개 한인교회들을 선정해 동서독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에 앞장섰던 니콜라이교회와 같은 모델 교회를 세우겠다는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8.15 기도회는 그동안의 역량을 한 데 모으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북교연은 "8.15 통곡기도회는 분단 70년의 때에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분단 70년이 통일의 해가 되도록 연합하여 기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기도회에는 최성규 목사(인천순복음교회), 이종훈 목사(서울교회 원로), 김진홍 목사(두레교회 원로), 이수영 목사(새문안교회) 등 교계인사를 비롯해 탈북민, 정치인 등이 참여해 주요 순서를 맡게 된다.

실무준비위원회는 전체 진행될 시간 중 80%를 통곡기도와 메시지, 간중에 할애하며 기도에 힘을 더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도운동은 '전국 주요 도시 교회에서 북한 동포를 위한 통곡기도회를 펼친다', '전국 역광장에서 통일 한국을 위한 통일광장기도회를 펼친다',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한다', '10만 통일 선교사를 세운다'를 주요 기도제목으로 삼고 있다.

이웃과 함께하는 2015 사랑의 바자

사랑나눔운동 8월 한달간 진행

사랑나눔운동이 8월2일 당회원들의 기부, 기증으로 시작된다. 바자 한달 전부터 시작되는 사랑나눔운동은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 바자에 십시일반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옷장 정리, 집안 곳곳을 정리하여 재활용 의류, 용품(안쓰는 휴대폰, 동전등)을 기증하여 이웃 사랑에 동참하기 바란다. 8월 한달간 진행되는 사랑나눔운동은 다음과 같다.

1. 기부천사운동

기증품 : 신상품 및 재활용품 (화장품, 식품, 잡화, 의류 및 소형가전, 생활용품, 폴더폰, 중고스마트폰, 외국 동전, 우표, 기념메달, 성경책)

1) 재능기부

- 미술 : 작품기증(회화, 붓글씨, 조각, 공예), 경매로 판매(1층)
- 음악 : 작은 음악회(1, 8층)
- 의료, 이미용 : 동네 어르신 의료, 이미용 봉사

2) 성도운영 사업장 상품기부

- 음식점, 커피숍, 미용실, 학원, 펜션등 서비스상품
 - 예 : 식음료권, 파마 이용권, 학원 수강권, 펜션이용권 등
- 3) 만원의 정성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 사랑의 바자에 참여하고 싶으나 다른 방법이 없는 성도
 - 모금함 : 1, 2, 8층, 또는 교구간사(202호), 사무국에 접수

2. 수익나눔운동

- 교인사업체 및 외부기업등에서 8월 매출액 또는 수입중 일부 기부
- 사랑나눔 봉투에 9월13일(주)에 현금.

3. 생활절제운동

- 교회학교 학생들의 8월 한달간 절제생활을 통한 기부(나눔) 운동
- 검소한 기독교 문화생활 정착 유도
- 사랑나눔 봉투에 9월13일(주)에 현금.
- 기부(금) 문의 : 010-8743-7514

스데반회 특강

『중직자의 섬김』 이종훈 원로목사
8월 8일(토) 오후 3시
웨스트민스터 홀

스데반회(회장 홍일성 집사) 8월 월례회 및 특강이 8일(토)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이번 특강에서 이종훈 원로 목사는 "중직자의 섬김"이라는 제하의 강의를 한다. 스데반회는 특강을 통하여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의 중직자로서 섬김의 자세를 점검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스데반회는 물론 관심 있는 성도들의 참석도 환영한다. 월례회는 3시, 특강은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앙강좌부 개강

오늘 601호 / 강사: 원종천 목사

신앙강좌부(부장 : 진교남 집사)가 오늘 12시 40분에 601호실에서 2학기 개강 한다. 강사로 원종천 목사가 선다.

2015 인도비전트립팀 파송식

지난 주일(7월 26일) 찬양예배시에 2015년 인도 비전트립팀(단장 : 박종권 집사) 파송식이 있었다. 8월 1일(토) 선교사역지 인도로 출국 하였다. 이들의 사역과 건강, 입국절차 및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길 성도들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2015 중등부 헌신예배

지난 주일(7월 26일) 찬양예배 시에 중등부(부장 : 김광욱 집사)가 헌신예배를 드렸다.





동성애는 탈(脫)성경적, 비(非)성경적, 반(反)성경적이다

- 교회는 반(反)사회적 동성애자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적인 것으로 판결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21개국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어 한국 사회도 술렁거리게 되었다. 그러나 동성결혼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반(反)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필자는 동성애를 지지 내지 주장하는 목회자 Matthew Vines와 Wilson Ken의 입장을 성경신학적 입장에서 비판하고,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를 바르게 계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쓴다.



이준윤 원로목사

그들은 죄에 대한 탈(脫)성경적 이해를 한다.

Vines와 Ken은 동성애와 연관된 이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성경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동성애자들과 개인적 친분을 쌓으면서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 그들은 동성애자들의 지혜롭고 사랑스런 동성자와 애정을 느끼는 것이 타고난 본성에서 오는 것임으로 이를 죄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을 잘못 읽은 결과라 한다. 전통적인 신앙인은 창조주 하나님 뜻에 반(反)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을 죄로 이해한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삶의 동기와 방법 그리고 목표가 예로스 사랑에 있다는 상황윤리(Situation ethics)학자들의 사상을 좇는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동성이 되었다고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성경은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거나 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남색 하는 것, 매춘, 강간과 같이 사랑 없이 상대방을 남용하는 것을 금한 것이라 한다.

Vines와 Ken은 역사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거부하는 것은 역사 발전을 중단시키는 어리석은 짓이라 주장한다. 특히 Ken은 크리스천들이 노예제도에 대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처럼 지금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Vines 역시 성경이 노예들의 인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기독교회가 노예를 차별대우 했듯이 오늘날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 교회는 역사 발전에 따라 재해석되고 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은 항상 세상 문화나 역사에 반대의 길을 제시하지 세속사의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다.

아주 최근까지 기독교의 모든 교회와 신학자들은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 저주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힘차게 외쳤다. 동성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노예를 차별하듯 현대교회가 동성애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뜻에 반(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동성애는 죄가 되므로 교회는 그런 길로 빠지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것이다.

오늘날 동성애를 지지하는 성경을 누가 찾았다면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문화적 광경을 보고 성경의 증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허구일 뿐이다.

그들은 사회에서 자기 존재감이 없는 상태에서

종교적 신앙보다 경험적 증거를 찾으려는 일관성도 없고 자기 동일성도 상실한 채 이성적 판단 없이 자유나 평등 문제를 성경에서 찾으려 애를 쓰나 성경 아닌 타락한 문화를 성경으로 잘못 읽고 있다.

그들은 성경 권위를 인정하나 반(反)성경적 해석을 한다.

Vines와 Ken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나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 가르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레위기 18:22에서 동성애에 대한 말씀 중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면서 금하고 있으나, 레위기 11:9-12에서도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조개류와 갑각류(굴, 새우, 게 등)의 물고기를 “가증한 것이니 먹지 말고 혐오할 것이니라”는 말씀을 대조시키면서 동성애를 반(反)성경적으로 합법화시키려 한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현대 크리스천들 중에 조개류나 갑각류의 물고기를 먹는 것이 죄를 짓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없듯이,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입장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그들은 신구약 전체를 보는 눈이 없거나 착시 현상을 일으킨 것이 아닌 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사도들의 예루살렘회의 결정을 무시한 것이다.

초대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먼저 유대인의 규례를 지켜야 기독교인이 되느냐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토론을 하는 초대교회 총회가 모였다. 사도들은 모세의 희생제도와 예전의 성결법을 더 이상 이방 신자들에게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교회의 이신칭의(以信稱義)교리”를 확증한 바가 있다. 다만 이방인들이 자기들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던 ‘우상의 제물’과 이방 신전에서 행해지는 ‘음행’과 짐승의 목을 매어 죽여 바친 ‘목매여 죽인 것’과 이방 신전에서 제사장이 맛보거나 마시는 ‘피를 먹지 말라’는 최소한의 법을 부과함으로써 의식법과 도덕법을 구별한 것을 동성애자들은 알지 못했거나 거부한 반(反)성경적 해석을 한 것이다.

레위기 19:18의 황금률은 아직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있다. 예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완전케 하러 오셨다”(마 5:17)고 하셨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자기 합리화의 방

편으로 오용해서는 안된다. 동성애를 금한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다.(롬 1장, 고전 6장, 딤후전 1장등) 그러나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장로의 전통으로 부정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성결법과 짐승을 죽여 피를 바치는 제사법이 더 이상 효과가 없음을 가르치셨다. 이같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 온 성결법과 제사법의 폐기가 동성애를 금한 율법의 폐기로 해석하는 반(反)성경적 해석의 오류를 그들은 범한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성경적 비전이 결여된 반(反)사회적이다.

성(性)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Vines와 Ken은 잘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 주신 가정에 대한 말씀과는 상당한 거리에 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창조시 서로 다른 짝을 지으셨다.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남자와 여자, 심지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는 것을 말씀한다. 이것이 창조의 지혜요 영광이다. 그들의 상호관계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연합하고 함께 하게 하셨다.

남자와 여자는 독특한(Unique)존재로서 서로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극상품 피조물이다. 그들은 서로 부족을 채워주고 상대편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므로 완전케 이룬다. 성(性)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평생 결혼 언약 속에서 힘과 영광을 함께 한다. 결혼은 인간 삶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유일한 자리는 아니지만 매우 설득력 있는 처소다. 남자와 여자를 새롭게 만들고(reshape), 서로 배우고(learn from), 더불어 일하게 한다(work together). 최근 사람들은 문화의 다양성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다양성 속에서 연합이라는 끝을 자른다. 이성(異性)의 결혼을 파괴시키고 동성애를 주장하려 한다. 다양성 속에서 연합이라는 비전 없이, 성경에서 주어진 성(性)적 금기 사항은 의미가 없다. 동성애는 다양성의 명예도 아니고 성교(性交)에서 인간의 성(性)을 구분할 필요도 없게 한다. 동성 관계는 완전케 하는 배우자가 되려는 노력도, 이성의 부부로부터 나오는 자녀에게 무엇을 준비할 필요도 없게 하는 반(反)사회적인 악마의 유혹이다.

필자는 동성애를 주장한 이들에게 노하거나 저주스런 마음으로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들의 주된 주장들이 脫성경적이고, 非성경적이며, 反성경적 그릇된 주장임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인류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反사회적 동성애 지지자들은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더 이상 건강한 사람을 미혹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위 글은 한국장로신문 7월 11일자 ‘순례자’란에 실린 것을 지면상 요약 정리한 것이다.)

(정리 허숙 권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7월12일 주일 오전10시에 서울교회 의료선교부에서 대진 땅을 섬기기 위해 대진중앙교회 마당으로 대형 버스 한 대가 들어 왔습니다. 서울교회에서 대진중앙교회를 올해 선교지로 선정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많은 기대와 기도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지난 3월14일 서울교회에서 오정수 장로님과 최광성 장로님이 다녀가신 이후 4월에는 비전 2020에서 다녀가셨고, 여름 사역을 위해 또 여러분들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12일부터 16일까지는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이곳에 나타내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섬겨주셨던 4박5일 동안 이곳 대진에서는 모든 주민들의 대화의 주

제가 대진중앙교회가 되었습니다. 병원이 없는 이곳에서 의료선교를 통해 처음 교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이미용 사역과 70인 전도대, 주방 봉사자들의 섬김의 모습을 가슴에 간직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통해 아이들의 부모가 수요일 저녁예배 시간에 방문하였습니다. 아이들의 부모가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노력봉사로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를 하였고, 교회 주변도 힘써 섬겨 주셨습니다. 또한 군부대에 자장면도 배달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며 대진중앙교회가 감동해야 할 모든 곳을 빠짐없이 섬겨 주었습니다.

4박5일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불편한 것

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불편한 기색 전혀 없이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침도 기도로 마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섬겼던 모든 분들을 통해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의료선교, 축호전도, 교회학교, 이미용 봉사팀, 주방봉사, 노력봉사, 군부대선교 어느것 하나 부족함이 따뜻한 주의 사랑으로 이곳 주민들과 대진중앙교회를 섬겨 주셨던 모든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받았던 사랑과 위로를 통해 더 열심히 이 지역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보내 주셨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지역에서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힘쓰겠습니다.

2015년 7월20일 김춘기 목사



동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8월8일(토) 서울교회 스테반회 특강을 한다.
- 이갑진 장로: 8.4(화)~11(화) 중앙아시아 지역 5개국기독교인 집회 주관 차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선교출장
- 득남 : 9교구 한민수 성도 강제해 성도(한중우 집사 황노전 권사의 장남 가정)
- 교역자 휴가: 황 광 목사(8.3-8) 대행 유문건 목사 박영준 목사(8.3-8) 대행 서명철 목사 조원영 목사(8.3-8) 대행 장석남 목사

호산나대학 부설 『결혼문화연구소』 개소

발달장애인들의 평생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호산나대학은 대학 부설로 발달장애인들의 결혼과 이성교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관리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월) '호산나결혼문화연구소'를 개소하였다.



인들의 아우성에 '콩당콩당 Date Academy(데이트 아카데미), 두근두근 Matching Party(맞선프로그램), 알콩달콩 Preliminary Couple Class(예비부부교실) 및 장애자녀의 결혼을 원하는 부모 대상 무지개 Parent

개소식에서 본 연구소 이동귀 소장은 "호산나결혼문화연구소는 발달장애인들의 만남 주선에서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연구, 실시하여 발달장애인들이 한 인간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꾸려 행복한 결혼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과 동시에 이들의 평생복지에 새로운 장을 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개소의 취지를 밝혔다.

Education (부모교육)등 총 4개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성교제와 결혼의 첫 관문인 '콩당콩당 Date Academy(데이트 아카데미)'는 이성교제를 원하는 발달장애인 남, 녀 각 15명을 대상으로 8월 22일(토) 시작해 매주 토요일, 총 10회기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호산나대학 홈페이지 (www.hosannacollege.net)이나 전화(031-585-9800)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호산나결혼문화연구소는 '우리도 사랑하고, 결혼하고, 행복하고 싶어요'라고 외치는 20만 발달장애

- 주일식당봉사 : 도르가 전도회(8.2) 리브가 전도회(8.9)
- 금주의 식사 제공 : 김도열 장로 박계진 집사 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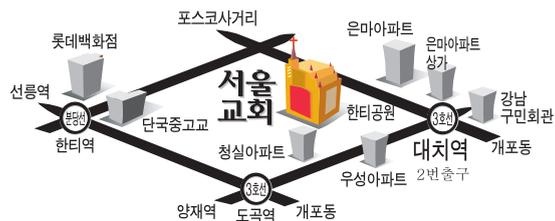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인도 비전트립팀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인도의 영혼들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2. 후반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다음세대들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 큰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3.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우리 민족에게 복음화 된 통일조국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 배	오후 1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